

100년 전 항일운동 떠올리며 달린다

익산시, 4·4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전국 마라톤대회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100년 전 일본의 제국주의적 만행에 저항하기 위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시위를 시작한 만세운동을 기념하고자 익산4.4 만세운동 100주년기념 전국마라톤대회가 오는 30일 익산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마라톤대회는 참가자 1000여 명을 목표로 익산4.4만세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익산시육상연맹에서 주관하여 치러진다. 대회 참가비는 하프

와 10km는 3만원, 4.4km는 1만원이며, 대회 참가 접수는 오는 25일까지 인터넷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838-0606, 인터넷 <https://iksanmarathon.co.kr>

특히 오는 15일까지 참가 접수한 경우에는 기념티셔츠를 사전 발송하고, 이후 25일까지 접수지는 현장 배부할 계획이다.

4.4km 코스는 마라톤과 별개로 2019 전국소년체전 성공개회 기원을 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비 없이 별도 걷기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단, 걷기 행사 참가자에게는 기념티셔츠는 제공하지 않으나 국수 등 간단한 간식은 제공한다.

한편 하프 코스는 제한시간 3시간으로 공설운동장~원팔봉사거리~전자랜드 사거리~삼성교차로-익산제3단교차로 200m 지점을 반환해 돌아오게 되며, 10km는 제한시간 2시간으로 공설운동장~원팔봉사거리~전자랜드사거리~삼성교차로(우회전)~삼성동이

동민원실~원광고~공설운동장 후문, 4.4km 코스는 제한시간 1시간으로 공설운동장~원팔봉사거리~익산문화체육센터~삼성어린이집 삼거리(우회전)~원광고~공설운동장 후문까지이다.

시상은 개인전, 단체전 각각 코스별 참가자 중 1위~5위까지 상장을 수여하며, 특별시상으로 최다 참가 단체에 대해 1~3위까지 시상하고 4.4만세운동을 상징하는 44위 시상과 100주년을 기념하는 100위 시상 등 다양한 특별시상이 주어진다. /익산=조용주 기자

영화 '질투의 역사' 배경은 군산

개봉을 앞두고 있는 다섯 남녀의 치명적인 미스터리 멜로를 담은 영화 '질투의 역사' 속 배경이 군산으로 알려져 관심이 끌고 있다. 이 영화는 메가폰을 잡은 감독부터 군산출신이며 영화촬영의 장소, 제작 후원까지 지역 내 기업들이 후원사로 참여한 더욱더 이목을 끄는 작품이다.



했다"며 "군산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에 기분 좋게 촬영을 마쳤다"며 군산을 영화의 배경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정인봉 감독은 자신이 직접 다녔던 거리들과 졸업한 학교의 모습을 담아 군산을 배경으로 하는 다른 어떤 영화들보다 더욱 자연스러운 군산의 매력을 스크린에 녹여냈다고 전하며 영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군산 출신의 감독인 정인봉 감독이 연출을 맡아 군산 율로케이션 촬영으로 제작된 질투의 역사는 군산을 배경으로 다섯 남녀의 비밀이 수면위로 나오면서 벌어지는 미스터리 멜로로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감독은 "태어나고 자란 곳이 군산시 욱구읍이라서 대부분의 감독이 자신을 풀어준 고향에서 촬영하기를 소망하듯 나도 그러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제작 의사를 밝힐 정도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에코그룹 유성민 대표는 "영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밝혀 영화 속에 펼쳐질 군산의 풍경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이승복 부시장, 군산지역 건설현장 점검 소통행진

이승복 군산시 부시장이 2019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 중 초준동 소재의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적극적인 소통행진을 펼쳤다.

이번 점검은 군산시와 군산소방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기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시 재난예방 민간예찰단과 일반 시민이 점검에 참여해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추락·낙하위험방지 설비 관리 상태, 안전포·안전화 등 착용상태, 현장 정리정돈 상태 등 고질적인 안전부시 관행이며 공사장 안전조치사항과 전기 및 소방시설물 관리상태 적정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위험요소에 관련된 시급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시정에 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승복 부시장은 건설시공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시민 스스로 내 집과 내 주변을 점검해 안전한 군산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시정발전 견인 2030 정책기획단 출범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부안 모항해나루 호텔에서 선·후배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책기획단 40명과 정현율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2030 정책기획단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은 정책기획단 운영방향 오리엔테이션, 특강, 분과토의, 선·후배공무원 간 다짐발표, 선진지 탐방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익산시 정책기획단은 선배공무원의 경험과 후배공무원의 진취적 사고를 바탕으로 상호학습을 통해 신규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여 익산시정을 발전시킨다는 목적으로 구성됐다.

1년 단위로 활동하는 정책기획단은 참여희망자를 중심으로 6개 분과(도시인프라 I·II, 관광 I·II, 문화체육, 농업농촌)로 구성되었으며, 출범 이후 근무 외 시간을 이용하여 10회 정도의 분과별 회의, 전체회의, 전문가 컨설팅 등을 거쳐 11월 중 최종발표회를 갖게 된다.

정 시장은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1, 2기에 비해 더 젊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성된 3기 정책기획단은



익산시, 선·후배공무원 구성된 2030 정책기획단 출범식을 가졌다.

익산시가 중점 추진하는 청년정책과도 궤를 같이한다"며 "9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능력 있는 공무원,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익산시정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공무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현재 익산시 공무원 가운데 20~30

대는 584명(37%)이 근무하고 있어 공무원이자 시민으로서 중요비중을 차지하는 2030세대가 4050 선배공무원의 도움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고품질의 사업과 정책을 직접 만들어보는 창구역할도 2030 정책기획단이 담당하고 있다. /익산=조용주 기자



익산시 금마 서동농촌테마공원이 기능 보강하여 개원했다.

익산시, 교육급여·초중고 학생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대상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오는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4인 가족/461만3천원) 68~70% 이하(고교 학비 68% 이하, 방과 후 자유수강권 70%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학생이거나 한부모가족대상

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는 집중신청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교육비유폴리클링신청시스템 또는 복지포)해 신청하면 된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은 "2019년에는 수급세대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

(초등 11만6천원→20만3천원, 중·고 16만2천원→29만원)되었다"며 "학용품비 지급횟수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일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지원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대상자(세대)가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전액),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월

17,600원) 등을 지원받게 되며 교육급여 대상자는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상담센터(☎1544-9654), 익산시청 복지정책과(☎859-5384),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익산=조용주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놀거리·볼거리 제공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금마 서동농촌테마공원이 농경전시관, 농특산물 안테나숍, 유아 황토놀이터 등을 기능 보강하여 개원했다.

시에 따르면 2017년 도농 교류 촉진을 위해 조성된 서동농촌테마공원은 자연친화적인 휴식과 농경체험을 제공하며 지역주민과 인근 유아 및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기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또한 지난해 농경체험관광의 날 행

사로 '점드라 북적북적 농촌체험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익산지역에 있는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체험경영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체험을 한자리에 모아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능 보강 사업을 통해 유아와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기고 체험하는 생태체험 교육의 장을 조성해 아이들의 소풍형 농촌체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조용주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 이종호 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 이평원 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